

## 행복한 성도의 여정

빌립보서 4 장 6 절 7 절

2020 년 10 월 11 일

이 질문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영국 코메디언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만나야 할 의사 6 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6 명만 잘 만나면 행복해 진다고 하였습니다. “태양, 휴식, 운동, 음식, 자기 존중, 친구들” 태양의 따스함을 즐기고, 잘 쉬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맛있게 음식 먹고, 자기가 참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친구들과 잘 사귀어 살며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티벳 속담은 이렇게 답합니다. “절반만 먹고, 두배로 걷고, 세 배로 웃고 끝없이 사랑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4 장 6 절 7 절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에게 행복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세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 모든 일에 기도하기, 그리고 무슨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기. Be anxious in nothing. Be prayerful in Everything. Thankful in anything. 늘 외우고 다니고 살 수 있도록, Leonard Sweet 레오나르드 스위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구호를 만드셨습니다. 영어로, Anxious nothing; prayerful everything; thankful anything.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구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염려 금물” “기도 항상” “감사 범사”

이 세가지만 하며는, 성도의 삶에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고 그리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된다고 바울 사도는 제시하셨습니다.

1

그런데, 가장 첫째로 실천할 것은, “감사 범사” 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 장 18 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라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듣기는 참 좋은 말이고,

말하기는 쉬운데,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흥회때에,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헌신에 관하여, 도시에 있는 가난한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합니다. 설교 후에,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헌금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모자를 사용하라고 헌금 위원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자가 헌금 바구니 역할을 한 거지요. 모자가 회중들에게 돌려진 다음에, 봉헌 기도를 위해서, 설교자 앞에 가져 왔는데, 모자 안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 때 설교자가 기도하기를,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제 모자가 다시 제 손에 들어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늘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리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를 받으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샘 솟듯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 장에서 주신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환영해 주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탕자가 자기를 맞이해 주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 감격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이 마음을 알아채린, 돌아온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넓은 마음, 품어주는 마음, 용서하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의 복 뿐 만 아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아 감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범사에 감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 날 집에 와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지갑을 다시 살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어 감사합니다. 지갑만 도둑맞고 몸은 상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지갑이 아니고 제 지갑이 도둑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가 몸에 배인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감사는, 환경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골치아프게 해도 감사합니다. 코비드 19 바이러스 야단 법석을 해도 감사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 하지 않고 방콕해서 감사, 코로나 불구하고 가게 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 병원에 안 가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을 햇살에 감사, 파란 하늘에 감사, 비가 안 와서 감사, 비가 내일 부터 온다니 감사, 따뜻한 한 잔의 커피에 감사, 잠을 잘 침대가 있어 감사, 운전하고 다닐 수 있어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2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며는, 그 다음 두가지 실천 할 것, 아무 염려 없는 생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생활이 활발하게 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넘쳐 기도합니다.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가 넘쳐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통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영험하다는 도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도사님, 저는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나도 불행 합니다. 제발 저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켜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도사는 "제가 지금 정원을 가꿔야 하거든요. 그 동안에 저 가방 좀 가지고 계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지요. 그는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지 않고 가방을 들고 있으라는 부탁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정원 가꾸는 일이 급해서 일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30 분쯤 지나자 어깨가 쑤셔 옵니다. 하지만 도사는 도대체 일을 마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요. 참다 못 한 이 사람이 도사께 물었습니다. "도사님, 이 가방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이 말에 도사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지 뭐하러 지금까지 들고 계십니까?" 바로 이 순간 이 사람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이 들고있는 것을 내려 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려 놓으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 지는데, 그 무거운 것들을 꼭 움켜잡고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기쁨, 슬픔, 아픔, 문제거리, 고민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픔도, 상처도, 문제거리도, 근심 염려 거리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상처가 있으면 싸매 주십니다. 아픔이 있으면 위로해 주십니다.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갈 길을 보여 주십니다. 어둠에서 헤매이고 있으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 주 예수님 바라봄으로, 눈을 주님께 돌림으로, 세상 근심은 햇볕에 눈 녹듯이 없어지고, 아침 안개가 바람에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 놓는 생활 속에,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 드 셀레스 라는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매일 매일 지켜주실 겁니다. 고난으로 부터 보호해 주시든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든지 하실 겁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주는 나의 능력이요 방패 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닥치는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삶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

평화를 제목으로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그 중에 두 그림이 선정되고, 그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뽑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넓은 호수가 참 잔잔하게 중앙에 그려져 있고, 호수 뒤에 있는 산이 완벽하게 물에 비추어지게 그렸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청청한 파란 색입니다. 그림 왼쪽 윗쪽에는 활짝 핀 야생화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 아래쪽에서는 들판에서, 사슴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 맘을 평온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두번째 그림은, 폭풍이 몰아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늘은 어두운 구름이 덮혀 있고, 음산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대고, 나무들이 바람에 휘어져 있고, 나뭇잎들이 정신 없이 흩날립니다. 그런데, 새가 한마리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휘어져 꺾어질 것 같은 나무 가지에, 새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 선정되었을 것 같습니까? 두번째 그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14:23-29) 평화롭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가주 토랜스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 같이 부르는 찬송 중의 하나를 부르게 됩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고이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 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그래서 연이어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감사 범사” “기도 항상” “염려 금물”

하나님의 평강 누리시며,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정진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